

다선 현역 vs 신진 세력...명운 건 세대교체 대결

광주·전남 4월 총선 관전 포인트

민주당 탈환이나 야당 사수나... 텃밭 호남 쟁탈전 정당투표 무게감 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적용 정의당, 정당투표 노리고 전 지역구에 후보 낼 듯 낮아진 선거연령...만 18세 새내기 표심도 관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교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의 용퇴 속에서 '수도권 물갈이설'이 확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세대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광주·전남지역 만 17세 4만3000여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서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하지 못했던 만 18세 젊은 유권자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각 정당도 '새내기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과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정당투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출마 후보가 있어야 각각 비례 투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 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광주·전남 선거구 활약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구의 최다선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6선의 천정배(65·서구) 의원이다. 천 의원은 7선에 도전한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간판으로 당선됐다가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박주선(70·동남) 의원이 5선에 도전하며, 바른미래당 김동철(63·광산) 의원이 5선을 노리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장병안(66·동남) 의원이 4선에 도전하며, 바른미래당 권은희(45·광산) 의원이 3선을 위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뛰어든 최경환(60·북구) 의원과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김경진(53·북구)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는 광주 8개 선거구 중 유일한 여당 현역의원인 송갑석(53·서구)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다른 7개 선거구에서는 신인급 출마자들의 경선 도전이 거세다.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군은 40~50대가 대다수이며, 광주시의회 등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신진급이 많고 청와대 출신 후보군도 많다. 전남지역은 야당 현역의원들이 쌓아놓은 아성을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목포 경선 구도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78)의 5선 수성(守城)이나, 민주당 주자의 탈환이나로 모아진다. 여수갑은 대안신당 이용주(52)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여수을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68) 국회의원의 5선 가도를 향해 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 미달로 일부 구역이 조정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주·화순은 국민의당과 무소속을 거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현역 손금주(49) 의원과 나주시장을 지낸 신정훈 전 국회의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중량급 인사가 민주당 경선에 나서면서 '예산-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다. 광양·곡성·구례는 무소속 정인화(63)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고흥·보성



민주당 전남도당 5·18묘지 참배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흥·강진 지역구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68) 의원이 3선에 뛰어 들었다. 해남·완도·진도도 대안신당인 윤영일(63) 의원이 재선을 위해 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61) 의원이 3선 준비를 마쳤고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61)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냈던 이정현(62) 의원이 일찌감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순천지역은 무소속이 당선되는가 하면, 진보정당 후보를 선택하거나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등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투표를 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 평가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의 '40·50세대'의 약진에 상당하며, 청와대 출신 젊은 정치인들과 여성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선전을 통해 '호남 맹주'의 자리를 되찾을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민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광주에서는 2만1016명, 전남에서는 2만2733명 등 이 지역에서 4만3748명이 대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각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표 행사권이 없던 만큼 적극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 셈이다. 각 여론조사기관들 역시 기존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이던 분석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일인 오는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맞춰 선거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장교육감은 최근 "총선을 앞둔 이 시기야말로 모의 선거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면서 내년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동안 한국을 뺀 35개국만

18세 이하에도 선거권을 부여해 왔다. 한국도 법 개정으로 이번에만 18세 선거권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당, 정의당 지역구 후보 늘어날 듯>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도 예상할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해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 정당한 곳을 고르는 '정당투표'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떨어놓은 묶음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제대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정당들도 '정당투표'를 노리고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 "광주지역 선거구에 중앙당 차원에서 중량급 있는 인물을 선정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극심한 인물

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 광주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구 인물'을 광주 선거구에 상징적으로 배치해 정당 투표율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광주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1석, 두자릿수 정당 지지율'을 목표로 내걸고,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 위해 해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재 후보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민주당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당 후보가 1명 정도만 있어도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예비후보 1명이 광주 지역구에 등록했고, 조만간 2명의 후보가 광주 지역구에 출마표를 던지는 등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황순영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이 최근 광주 북구에 출마하는 등 모든 광주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애초 논의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후퇴한 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초점을 맞추고 광주지역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8석의 지역구 중 6석에 후보를 내정한 상태이며, 내부 준비를 마친 뒤 공식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함께! 다같이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높이는 한전KPS의 기본 좋은 상생프로그램입니다. 패러데이 스쿨 편

www.kps.co.kr

Perfect & Pride

★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신학 상생 프로그램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한전KPS주식회사